

인상검토의 저변

지금까지 간간히 양계업계에 화제가 되어오던 사료가격 인상문제가 한국사료 협회측의 대(對) 농림부 건의로 조심스러운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란과 부로일러로부터 양계가들이 얻는 수익의 폭이 최근 극도로 좁아져 있고, 양계 생산물의 유통 경로가 양계가 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화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느 사료 메이커의 영업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배합사료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이커는 계속 힘써 왔으나 그간 상승되어온 생산 코스트의 압력으로 이제는 더 지탱하기 어려운 입장에 도달 하였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원료의 품귀 현상으로 원료 값이 크게 뛰여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강력한 요인이 되어있다. 1972년 말까지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료값을 올리지 않았으나, 년초(1973)에는 인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71년 8월경 사료값이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재 인상되는 이번의 인상폭은 비교적 클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경기도 양주군에서 산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양계가는 “요즘 배합사료의 칼로리 함량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안다. 하루 한마리의

섭취량이 140~150g으로 늘었다. 사료효율도 저하 되었지만 산란율도 유지가 안 된다. 오히려 사료값을 적절하게 올려 품질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사료값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사료 메이커가 주장하는 사료원료 가격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본다. 외산 옥수수—양계사료에 보통 55—60%의 많은 비율로 혼합되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료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톤당 60\$ 선으로 수입되던 것이 12월 하순에 수입될 옥수수의 가격은 73\$ 선으로 약 20%가 인상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배합사료 1kg당 1원80전의 원가증가로 20kg 한 포대 당 36원이 비싸 짐을 의미한다.

외산 어분—지금까지 페루에서 생산되는 어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으나, 그쪽의 어장 기근으로 어분이 품귀한 상태이고 국제가격이 톤당 94,000원 선에서 160,000원 선으로 올랐다. 이것 조차 구입하기, 어려워서 금년도 어분 수급계획에 짙은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국산어분—외산 어분의 영향으로, 각 사료공장 양질의 국산어분을 구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요즈음의 어분가격이 쌀때 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kg당 67원 하던 어분이 90원선, 양질의 것은 130원을 증가한다. 이 어분은 산란사료에 5% 수준으로 배합되고 있으며, 배합사료 1kg당 3.00원의 원가상승 요인을 이룬다. 어분값이 뛰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분 공급

의 부진으로 사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채종박—채종박은 단백질 원료 중에서 가장 값이 싼 원료다. kg당 17~23원 하던 것이 대두박과 어분의 사정이 나빠지므로 해서, 채종박의 사용량이 증가되어 채종박의 kg당 가격은 50~56원으로 크게 뛰었다.

밀값의 국제가격 등귀—72년 1월에 톤당 60\$ 하던 원백 값이 8월 1일에 80\$, 10월 15일 현재 109\$로 10개월 간 52%의 등귀율을 보이고 있어, 배합율표에 5~15% 수준으로 배합되고 있는 밀기울 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사료공장은 신용거래로 원료를 구입하고 있었으나, 이상과 같은 사료원료의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거래조건이 현찰거래로 바뀌므로서, 사료메이커는 2중 3중의 경영적 면에서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이상이 사료메이커가 사료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뒷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시련

인상안을 둘러싼 시비는 정부에서 잘 검토하여 양계가 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믿으나, 사료값이 몇% 수준으로 인상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우리 양계가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료값이 사료메이커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15% 정도의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계가 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는 셈이 될 것이다.

현재 산란사료 kg당 42원 짜리를, 년 평균 1일 120g 섭취하는 닭이 헨하우스 년 220개(60%)의 계란을 낳을 경우 계란 1개당 사료비는 8원40전, 거기에 인건비, 육성비상각, 시설비상각, 약값, 수리비 등을 합하면 적게 잡아도 계란 1개의 생산코스트는 10원 40전이 된다.

이에서 사료값이 15%인상 될 경우 계란 1개당 생산코스트는 1원 40전이 비싼 11원70전이 된다.

생산비 중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1일 사료섭취량이 10g 높은 닭의 계란 1개당의 생산비는 약 1.0원이 비싸지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부로일러의 경우는 사료값 15% 인상의 경우 kg당 생산원가가 15~17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좋은 능력의 부로일러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생산코스트의 상승을 우리 양계계는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 양계계는 반성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오히려 이러한 심각한 진통의 기회가 우리 양계계를 단결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양가들만이 아닌, 사료업체, 기구,약품, 부화업체를 총 망라한, 다각적인 부문에서 계란, 부로일러의 총비용(總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양가들은 소위 계우회, 축우회 같은 따위의 양계협동구립을 단지 친목회 정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사료,약품 공동구입, 메이커와의 직거래, 공동판매를 통한 원가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양가들 자신의 경영합리화 문제일 것이다. 가까운 일례로 철저한 장비기장 없이 손해를 보게 하는 요인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깔짚을 한단 적게 소비해서 얻는 이익, 새로운 육추방식에 의한 육추비절감, 같은 시설에 10%를 더 기를 수 있는 사양관리기술의 연구, 이로서 얻는 수익등 아주 사소한 요소들이 계란1개의 생산비를 50전까지 부로일러 1kg당 생산가를 10원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없이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가금생산물의 총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 사료메이커가 기여해줄 수 있는 것은 사료품질의 과학적인 향상과 사료유통상의 코스트 절감이라 생각된다.

사료메이커는 보다 저렴한 원료비로 보다 우수한 사료를 만드는 노력을 더욱 경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종류의 부로일러에 여러 사료 회사의 사료를 먹여 키웠을때, 사료요구율에서 많은 차이를 낸 시험성적을 본적이 있다. 같은 성장 체중에서 사료요구율 0.1의 차이는 육생 산비를 kg당 5원25전 정도 좌우하는 큰 차이이다.

연수회를 자주 가져 사료생산 기사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사료유통면에서도 합리화를 요구하고 싶다. 사료공장을 지역적으로 잘 분산시켜 서울의 사료가 부산까지 내려감으로서 발생하는 유통코스트를 줄이도록 해야겠다. 사료대리점 형태에서 적매점 형태로의 전환, 휘드뱅크를 이용한 선박수송, 500kg 들이 마대포장수송 등도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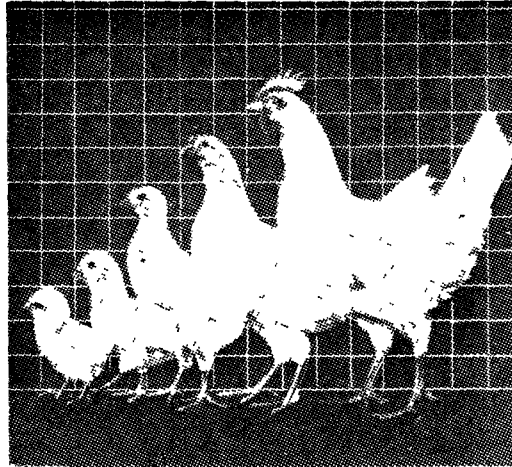
사료메이커는 가끔 생산물의 유통코스트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계란의 유통

비 절감은 소비대중의 입장에서 볼때 계란의 생산비 절감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산골 양계장에 사료를 수송하고 계란을 실어오면 그 만큼의 유통비를 절약하여 계란의 최종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유통경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료메이커를 위시한 부화장, 약품회사, 양계기구회사, 가금협회 등 각 부문에서의 보다 과감한 협조를 우리 양계인들은 바라고 있다.

김 영 환

경영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생산비를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일지의 기록, 분석은 다른 어떤 관리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가금 협회에서는 양계인이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과거의 육추일지와는 전혀 다른 가장 새롭고 충실한 경영일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료회사, 제약회사, 부화장, 기구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용으로 양계 경영 일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양계인과 회사가 함께 번영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주문을 기대합니다.....

양 계 경 영 일 지

오 봉 국 편 저

- 크기·4.6배판 (현 월간 양계크기) 60페이지
- 내용· 부로일러와 산란계를 분리 부로일러는 10주까지 산란계는 0~74주 까지의 매일 매일의 경영 기록표와 경영성과 분석표외에 1973, 74년도카렌다 경영일지 사용법, 부화장, 종계장, 사료공장, 제약회사, 기구업자 일람표, 산란계, 부로일러의 방역위생프로그램, 표준성장율, 육성율, 산란율, 사료효율, 음수량, 체중그래프, 생산원가 계산서,

자금계획서, 년간 가격동향, 출하현황, 사양관리 지침서등 양계인에게 꼭 필요한 사항만 게재

- 발행부수 ·40,000부
 - 가격·부당 100원
- 500부 이상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계경영일지 표지에 상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서울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 26-0321, 4692